

CSU Monthly 2026년 4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WEEKLY Headline

- 3월 첫째 주: 김춘성 총장, “세계적 수준 웰에이징 역량 갖춰, 글로벌대로 거듭날 것”
- 3월 둘째 주: **개교 80주년 맞아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성료**
- 3월 셋째 주: 조선대학교 202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155명 합격
- 3월 넷째 주: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실무TF 본격 가동... 실행 로드맵 구체화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맞아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성료

“80년의 동행” K-컬처공연·기획학과 재학생들이 기획한 ‘특별한 시작’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해오름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입학식은 4,500여 명 신입생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K-컬처공연·기획학과 재학생들이 행사 기획과 운영 전반에 참여해 젊고 감각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며 주목받았다.

행사는 ▲개식사 및 환영사 ▲입학 허가 및 선서 ▲기념 영상 송출 ▲총장 및 총학생회장과 함께하는 게임 이벤트 ▲댄스 동아리 및 태권도학과 축하공연 ▲총학생회 소개 ▲경품추첨 ▲슬로건/카드섹션 이벤트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 전 로비에서는 학교 캐릭터 ‘조아’와 함께하는 ‘인생네컷’ 포토 부스가 운영돼 신입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피날레는 신입생 전원이 개교 80주년 메시지가 담긴 슬로건을 들고 ‘단체 카드섹션’에 참여해 개교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김춘성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조선대학교 80년 역사 위에선 첫 세대이자 새로운 100년을 열어 갈 세대”라며, “교정에서의 시간이 여러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대-전남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위해 맞손

고교 단계부터 대학 수준 교육 경험... 학생 과목 선택권·학습 선택권 확대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3월 27일 본관 청출어룸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을 지원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 간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전남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조선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칙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양 기관은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과목 운영과 학점 인정 기준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선대학교는 교육청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며,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진로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교육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Interview

캠퍼스에서 결혼까지, 조선대학교에서 웨딩사진 남기다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천명훈♥박가영 동문 커플

따뜻한 봄날,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한 ♥특별한 커플♥이 카메라와 함께 찾아왔다.

조선대학교에서 만나 10년의 시간을 함께해 온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강의실에서의 첫 만남, 시험을 함께 준비하던 날들, 공과대학 벤치에 앉아 나눈 수많은 대화까지.

두 사람의 시간은 캠퍼스 곳곳에 커켜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웨딩촬영이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다.

캠퍼스에서 시작된 사랑이 웨딩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들의 10년을 따라가 보자.



Q1.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천명훈: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4학번으로 입학해 졸업한 천명훈입니다.
현재는 원자력 관련 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가영: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4학번 학사, 18학번 석사, 20학번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는 원자력 운영 회사에서 인간공학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가영입니다.



Q2. 원자력공학과 CC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천명훈: 1학년 때 수학 교양 수업에서 여자친구가 앉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기말고사 이후 중강 파티를 함께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첫인상은 '웃을 정말 잘 입는 친구'였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저에게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느껴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박가영: 1학년 때 농촌봉사활동을 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진짜 호탕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됐습니다.

Q3. 대학(원) 시절 조선대학교에서 연애를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또한, 추억의 스팟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천명훈: 공부할 때나 힘들 때마다 공대 15층 벤치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Ri(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축하해준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가영: 제가 실험실 생활을 할 때, 학부 재학 중이던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놀다가 저를 보러 랩실에 자주 찾아오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대 15층 벤치에 앉아서 서로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수다를 떨었던 시간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저희 후문 무진장떡볶이를 진짜 좋아했는데, 같이 떡볶이 먹은 추억도 많이 떠오릅니다.

Q4. 만약 대학 시절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천명훈: 여자친구와 함께 석사 과정을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학사까지만 졸업해서 여자친구가 석사, 박사를 준비할 때 공감을 많이 못 해줬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박가영: 지금은 직장인이라 내일이 있고, 또 건강이 걱정되다 보니 술을 많이 못 마시고 있는데,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둘이 같이 조대후문에서 친구들 불러서 부어라마셔라 하고 싶습니다. ㅎㅎ 저희 둘 다 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Q5.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나 순간이 있나요?

천명훈: 연애 때부터 느꼈지만, 여자친구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를 잘 이해해 주고, 여러 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웃도 잘 입고 제 스타일이고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박가영: 처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뜸 결혼하자고 해서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만남을 이어가며 가족과의 관계나 따뜻한 성격을 보며 신뢰가 생겼어요.
이전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아침에 볼보보하며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했던 일화를 들으며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Q6.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요?

천명훈&박가영: 결혼을 결심하니까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려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20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잘 맞을 수가 있겠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 각자의 토피바퀴 모양이 다 다르니까, 지금은 삐걱삐걱거리더라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굴러서 살아보자!”라면서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Q7. 웨딩촬영 장소로 모교를 선택하신 계기가 이유가요?

천명훈: 캠퍼스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계절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풍경과 축제의 즐거운 기억이 많이 남아서 학교에서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박가영: 형식적인 스튜디오 촬영보다 우리의 연애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열어보고, 촬영하는 이 순간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둘 다 광주가 아닌 대전에서 살아서, 야외에서 스냅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게 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Q8. 두 분의 연애 과정에서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천명훈: 20대의 시작부터, 젊은 10년의 시간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꿈을 향해 함께 공부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며 성장해 온 기억이 모두 담긴 공간입니다.

박가영: 매번 그런 상상을 하는데, 조선대학교가 없었다면 저희는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조선대학교에 오게 된 이유도 정말 각각의 우연이 따라줘서 오게 된 경우라서 정말 신기해요. 조선대학교는 저희에게 그저 모교가 아니라, 인연을 만들어준 매개체입니다!

Q9. 조선대학교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CC 커플이나, 앞으로 CC를 기대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천명훈: 연애 초기 100일도 안 돼서 농담처럼 결혼하자고 말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니 너무 부듯하고 행복합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쌓은 추억이 많을수록 관계도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후배분들도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쌓아가면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도 마음껏 즐기세요! 힘들 때 즐거웠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박가영: 과 CC는 같은 분야를 공유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예요. 함께 성장하는 느낌도 크고요. 겹지인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도 매력적입니다.

생각보다 과CC 너무 좋아요. 함께 해요. ㅎㅎ 대부분 과CC는 헤어지면 민망해서 학교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헤어지면 생각하세요. 뭐 두고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릴지언정 그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연애하고 살아요 우리!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